

# 김병내 남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국장' 파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회장을 맡은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간 정책 총괄을 담당하는 협의회에 구청 4급 간부 공무원을 파견, 남구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초석을 마련했다.

특히 정부 주관 공모사업 등을 총괄하는 선임 국장 자리에 구청 간부 공무원을 파견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소통·협력은 물론 구청 내 고위직 인사적체까지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남구에 따르면 김병내 구청장은 최근 인사를 통해 박상준 사무관을 4급 서기관으로 승진, 협의회에서 근무하도록 파견 조치했다.

그는 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된 뒤 협의회 4급 자리인 기획관리 국장으로 박 서기관을 보내기 위해 협의회 및 행정안전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김병내 구청장은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최근 하반기 수시 인사를 즉

각 단행, 구청 내 적체된 인사행정에 물꼬를 뒀다.

협의회 기획관리 국장 자리는 당초 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몫이었으나, 김병내 구청장의 정치적 역량 발휘로 구청 4급 공무원을 파견하는 결실을 맺었다.

이에 따라 구청 내부에서는 5급 승진 자리 추가로 6~8급 직원의 승진 기회를 넓혔으며, 4급 승진을 목표로 하는 5급 사무관간 경쟁 부담

도 될 수 있게 됐다.

현재 4급 승진을 앞둔 사무관은 다수로, 일부는 내년 1월에 정년 퇴직 예정자 준비교육에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협의회 선임 국장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간 공모사업 진행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정부 사업을 통해 남구 발전을 도모하는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 서구,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내년 4월까지 건축물 붕괴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년마다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대규모 건축물과는 달리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점검 의무 규정이 없어 소유자의 의지가 없으면 안전관리가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재개발·재건축 해제 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등 도시 한복판에 남아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서구는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관계법령을 근거로 4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중 3층이하, 연면적 200㎡이하인 민간 건축물 총 400여개동을 대상으로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차로 건축전문가가 직접 현황을 방문해 육안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표'에 따라 5단계로 안전등급(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을 결정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미흡·불량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매뉴얼에 따라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의뢰해 구조 안전, 화재 안전, 에너지 성능 등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건축물은 소유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안내하고, 긴급 조치가 필요하면 사용제한, 사용금지 등의 행정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안전점검과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사고수습지원과(062-360-4796)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서구청 사고수습지원과장은 "추가로 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고수습지원과로 신청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 동구, 움직이는 마을복지관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이달부터 관내 복지관 인기 프로그램을 마을 내 사랑채 등 주민 공유공간에서 연계 진행하는 '움직이는 마을복지관' 사업을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산수1·계림1동)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복지관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참여 기회를 제공해 주민 삶의 만족과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 사회 복지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동구장애인복지관의 아우어빌리지(바람땀·한지경대 만들기) ▲동구시니어클럽의 커피박업사이클링(커피 찌꺼기 재활용 체험) ▲동구노인복지관의 홀로 어르신 행복 증진 건강프로그램 등이다.

향후 동구는 빛고을복지관 등 다양한 복지시설과 추가 협업을 통해 내년 3월까지 관내 전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전화(☎062-608-2559)로 신청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역민 모두가 보편적 복지서비스와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마을사랑채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진행해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최근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애도 기간(11월5일 24시까지) 추모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예정된 행사와 축제를 취소 또는 연기할 것을 지시했다. /광산구청 제공

## 광산구, 이태원 참사 애도...행사 취소·연기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서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관내 주요 행사나 축제를 취소·연기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최근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애도 기간(11월5일 24시까지) 추모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예정된 행사와 축제를 취소 또는 연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광산구는 이날 예정된 광산

구 양궁체험장 개장식과 사회적 경제 홍보 피크닉 클래식 가을밤 음악회를 취소하고, 제13회 더불어라 대동회 및 예술제,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체육대회, 어등지역자활센터 어등축제 등 11월 첫 주 행사도 대부분 취소 또는 연기하기로 했다.

민간에서 열리는 행사 및 축제에 대해서도 개최 현황을 조속히 파악해 점검 및 조치할 계획이다.

/서기만 기자

광주시와 함께 사상사 신원파악 및 피해 회복 지원,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앞서 광산구는 정부의 국가 애도 기간 지정에 따라 지난 30일 희생자를 추모하는 뜻으로 구청사와 동청사에 조기를 게양하고, 구청사 입구에는 근조 현수막을 설치했다.

/서기만 기자

## 북구, 첨단산단에 '스마트도서관' 개관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첨단 산업단지에 스마트도서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서관은 무인자동화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도서관으로 기기 내 수백 권의 장서가 비치돼 현장에서 바로 대출·반납이 가능하며 365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문을 여는 스마트도서관은 광주역에 이은 2번째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2년 U-도서관 서비스 구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6천 3백만 원을 들여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1층에 조성했다.

이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책 읽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산단 내 접근성이 높고 이용객 많은 광주지역본부에

스마트도서관이 자리 잡았다.

북구 구립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회원 또는 공공도서관 이용 앱인 '리브로피아'를 통해 회원증을 비대면으로 발급받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책은 1인당 3권까지 최대 2주간 빌릴 수 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스마트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해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평일 도서관을 이용하기 힘든 첨단산업단지의 1만 8천여 근로자를 위해 스마트도서관을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스마트도서관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주민에게 편리한 독서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전투기 소음피해를 후손 대대로 물려줄 수 없습니다.**

1/3

무안군민은 전투비행장 이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영상자료**  
자세히보기

연론 보도 +  
[뉴스1 `21.2.2.] ▶민심탐방◀ "군공항 이전 무안군 회생 강요 안 돼... 국방부 나서라"  
[뉴스1 `21.1.25.] 광주시 전남도 입정차 '땀방'...군공항 이전 '답보 상태'

범국민대책위원회 +  
(\* 20.11.24.) 새마을지도자 광주 군공항

진실은 이렇습니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무안군민의 회생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자세히보기